특별기고

에딘버러와 광주

박선정

스코틀랜드는 한국과 유사점이 매우 많다. 지금은 영국으로 통합됐지만 오랜 세월 잉글랜드의 침략을 받은 역사적 경험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멜 깁슨 주연의 영화 '브레이브 하트'를 보면 실감날 것이다. 잉글랜드에 대한 반감과 자존심이 도시 곳곳에 배어있는데 국민스포츠인 축구마저 스코틀랜드 리그를 따로 운영할 정도다.

광주 출신 기성용의 셀틱FC가 이 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또 우리처럼 교육열이 매우 높고 다혈질적이며 원칙을 중시하는 편이다. 에딘버러는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원형과 기질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이다.

세계적 예술공연물 축제 열려

인구 46만명에 불과한 에딘버러가 축제 전략으로 연간 1천2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세계축제왕국'으로 우뚝 서게 된 배경에는 고집스런 스코티시(스코틀랜드 사람)의 기질과 전통이 녹아있다.

1947년 전쟁의 상처를 딛고 8개 극단이 문화와 예술을 통한 전후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기치로 내걸며 변두리의 작은 극장(프린지란 본래 '가장자리' 또는 '주변'이라는 뜻으로 이 '변두리 극장'에서 유래한다)에서 프린지축제로 시작된 에딘버러축제는 오늘날 12개의 축제로 확대 발전되었다. 4월에 오픈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다음해 1월1일 새해맞이 축제까지 에딘버러는 축제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

최근 필자는 광주시 관계자와 함께 에딘버러를 방문, 에딘버러시 초청으로 광주특별공연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 개최되며 공연장은 에딘버러 인터내셔날 컨퍼런스센터(EICC) 홀이다. EICC는 에딘버러 시내의 고색창연한 역사적 건축물 사이에 있는 원통모양의 현대식 건물이다. 1200석 규모의 가변형 공연장이며 에딘버러성 인근에 있어 인기있는 공연장 중 하나이다. 이 정도의 공연장을 구하기란 행운이랄 수 있는데 에딘버러시 공연정책담당 아날리(Annalee)의 열정적인 도움 때문에 가능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예술축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프린지축제는 세계적인 예술공연물 견본시장이다. 세계 각국의 축제프로그래머, 에이전트, 프로듀서 등 공연산업 전문가들은 프린지축제에 와서 공연들을 보고 예술성과 상품성을 평가하여 마음에 들면 구매해간다. 난타도 1999년 프린지축제에 참가해 좋은 평가를 받은 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상품이 되었다.

작년 프린지축제는 25일간 259개 공연장에서 2453개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이중 1200여개의 공연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프린지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7천5백만 파운드(약 1380억 원)에 달한다.

이제 에딘버러를 향해 주사위는 던져졌다. 세계적인 공연산업 전문가들과 저널리스트들 앞에서 광주공연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흥분된다. 다행히 위안을 삼을만한 대목은 있다. 프린지축제사무소(The Festival Fringe Society)에서 샘플로 가져간 광주공연단체들의 영상을 보여줄 때 매우 흥미를 느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관객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점이 축제담당 아날리의 도움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8월 광주특별공연 기대

또 한가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오는 8월 12일부터 열리는 인터내셔날 페스티벌은 올해 주제를 '아시아의 문화'로 정했다. 이 국제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세계적인 유명공연단체를 직접 초청하여 1,2년 전에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초청되었는데 장예모 감독의 중국 국립중앙발레단, 지휘자 정명훈의 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이 대표적인 단체이다.

수 세기 동안 서양의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마음을 사로잡은 매혹적인 아시아의 예술과 오리엔탈리즘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려질 광주공연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더군다나 에딘버러 최초의 순수 광주산(産)공연이다.

무엇보다 광주의 정신과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항상 실험정신을 추구하는 에딘버러의 정신과도 맥락을 같이하면 좋겠다. 세계적인 공연시장에 당당히 올려질 우리의 작품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사설

일본 국민 돕기에 광주·전남이 앞장 서자

일본 열도는 '3·11 대지진' 참화로 비탄에 빠져 있다. 한 순간에 덮친 사상 최악의 강진과 대형 쓰나미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일본 국민의 망연자실함은 말로 표현키 어려울 정도다. 여기에다 대지진 여파로 인한 원전의 폭발이 잇달아 방사능 공포감까지 극도에 달해 패닉 상태다.

자연재해 대처 능력이 세계 최고라는 일본도 이번 지진만큼은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이다. 또한 피해 규모와 정도가 워낙 크고 광범위해 경제대국인 일본으로서도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은 비록 애증이 교차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리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 일본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웃의 고난을 팔짱끼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이유다. 지역민이 일본을 돕는 데 그 누구보다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전남지역 각계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본 돕기 운동을 본격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센다이시와 자매결연을 한 광주시는 50명 규모의 복구지원단 파견 등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광주YMCA와 광주국제교류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모금운동 등 일본 국민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 밖에 조선대 등 지역사회 각계 각층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인명 구조와 부상자 치료 등 구호 작업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광주·전남이 먼저 달려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 국민을 위로하고 힘이 돼줘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이웃이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광주·전남의 참모습을 보여주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본 국민의 아픔을 감싸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다.

고유가 시대 '허리끈' 단단히 졸라매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자출족)이 크게 늘고, 대중교통 이용도 급증 추세라고 한다. 또 값싼 기름을 넣기 위한 '원정 주유'나 '셀프 주유'도 일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속등과 그로 인해 점점 더 팍팍해지는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광주시내에서 휘발유의 1ℓ 당 평균 가격은 1937.24원으로, 역대 전국 평균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7월의 1950.02원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초까지 '자출족' 동호회 가입자 수가 하루 평균 150명 정도였으나 지난 2월 말부터 2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대중교통의 이용률도 급증 추세에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달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지난 1월에 비해 15% 가량 늘고, 지하철 역시 16% 이상 증가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넣기 위해 원정 주유나 셀프 주유소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고유가의 충격파가 직장인들 출·퇴근 풍속도까지 바꿔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자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나기가 오면 피하라'는 말이 있듯 마른 수건도 짜야 하는 현실에 절약하는 자세와 생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에, 천정부지의 물가로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름값 폭등으로 생산비용이 불어나면서 기업들이 울상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닫고, 어민들은 고기를 잡을수록 손해를 본다고 손을 놓고 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난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것은 그 의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유가 시대의 현실적인 대안은 당장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일이다.

은펜칼럼

최영태

총·학장 직선제 문화를 위한 변론

대학의 총·학장 직선제 문화는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며 일부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사회에 공고하게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학에서 총·학장 직선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말 대통령령으로 총장이 학장을 직접 임명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시도도 직선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법인화가 시행될 경우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날 변화는 총장 직선제의 폐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안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흔히 총·학장 직선제의 단점으로 교직원들이 선거운동에 시간을 소비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 후유증으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며, 또 선출된 총·학장이 선거권자인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행정을 하지 못한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공감이 가는 대목이 없지 않다. 그러나 총·학장 직선제에 담긴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부정적 측면을 능가하는 긍정적 요소들이 훨씬 많이 담겨 있다. 직선제는 교수가 총·학장 자리를 구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정부와 총장 등에게 로비하는 문화를 퇴출시켰고, 총·학장이라는 직책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임명되어 대학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최소화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여년 동안 선거를 통한 역동적 리더십의 창출로 우리나라의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의 경우 학장 직선제를 실시하면서도 필요하면 임명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매우 유연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실제로 모 단과대학은 몇 년 전 단과대학 교수회의의 결의에 의해 직선제 대신 임명제를 채택하기로 하고 총장에게 학장의 임명을 요청했었으며 이에 따라 총장이 그 대학 학장을 직접 임명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그 대학은 두 번의 실험 끝에 다시 직선제로 회귀했다. 직선제가 임명제보다 훨씬 긍정적이라는 것을 새삼 발견했기 때문이다.

직선제 폐지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역동성과 창조성을 가볍게 여긴 결과이거나 대학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장악하기 위한 음모의 성격이 더 강하다. 물론 대학 구성원들도 이 기회에 반성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임명제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명제의 구실이 되고 있는 과열선거, 조직선거를 선도하거나 혹은 그런 선거풍토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총·학장 직선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선거문화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필요하다.

비록 대통령령에 의해 학장 직선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총장은 학장 임명시 어떤 형태로든 대학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의와 연구, 학생 지도의 최종적 주체인 교수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지 못한 학장은 설령 임명권자인 총장의 총애와 지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대학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이 임명제를 선호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 임명제 방식을 취하고, 반대로 구성원들이 선거 방식의 여론수렴절차를 원한다면 그것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총장과 구성원들이 지혜를 짜낸다면 대통령령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제도에 준하는 여론수렴 방식을 얼마든지 고안해 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어야 할 대학이 합리적 토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선거폐해론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것은 대학과 민주주의의 발전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전남대 교수〉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문상필

지역 맞춤형 어린이 공원 만들자

현재 어린이공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일요일 북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관내 어린이공원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충분한지, 노후 된 시설은 없으며 안전한지가 궁금해서였다.

처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어린이 공원이 시소, 그네 등 몇 가지 놀이시설만이 설치되어있고 바닥에 고무재질인 탄성포장을 한 천편일률적인 모습이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이 장애인 및 이동약자는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높은 턱이 있거나 경사가 급한 오르막이어서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이나 이동약자들은 접근을 포기해야했다. 그나마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몇 곳의 장애인화장실마저도 전부 문이 잠겨 있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시설이었다.

타 시·도를 보면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이들이 방과 후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놀이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관내 어린이공원에서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08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오는 2012년 1월까지 제조,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 안전 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제하였고, 이를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하지만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1594곳의 놀이시설 중에 13.3%만이 설치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민간관리 대상인 887곳 놀이시설의 경우 겨우 8.6%만이 설치검사가 이루어져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의 노후 된 시설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 광주시나 자치구의 빠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철거위기에 놓인다는 말이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민간관리 대상 놀이시설이나 아파트 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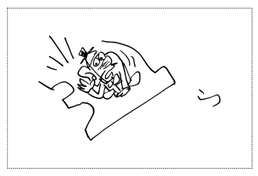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사람들은 쉴 곳이 필요하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가볍게 마실 나올 수 있게 곳곳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해야 한다.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몇 개 놀이시설과 정자, 의자 등을 설치한 그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공간을 넓히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해야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놀 수 있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곳, 장애인이나 이동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주민들이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도록 도심 속의 쉼터를 만들어야만 한다. 앞으로 있을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해야 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無等鼓

레무리아



"앞선 시대에, 25개의 궁전과 40만 개의 거리가 있었던 육지를 바다가 삼켜버렸다."

한때 실론(Ceylon)으로 불렸던 스리랑카의 고대 문헌에 쓰여있는 글이다. 실론의 고대 문헌에 따르면 현재의 인도양 지역에 사라진 문명이 있었으며, 그 육지가 인도와 스리랑카의 섬들을 연결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미얀마인 남부 버마의 전승 문헌에도 이 사라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나라는 대륙의 규모였지만, 악령의 딸이 수많은 바위를 바다로 던져 넣어 물이 차올라서 땅을 삼켜버렸다."

사라졌다는 이 대륙이 바로 레무리아(Lemuria)다. 일명 황금대륙-무(Mu)로도 불리는 이곳은 1만2천여 년 전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한 때 사람이 살던 대륙이 오늘날 인도양이라 불리는 곳에 있었다는 설화 또는 우화가 퍼져 있다.

현재로선, 이들 대륙의 존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단순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지구의 모든 발전과정은 극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균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균일론과 진화론이 힘을 얻으면서, 사라진 고대 대륙의 존재는 현대인의 마음속에서 빛을 잃어갔다. 선사시대에 지구 대격변이 있었다는 생각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단'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규모 9.0의 대지진과 엄청난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했다. 어느 한 곳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찾지 못하고 그저 망연히 절망과 공포를 견뎌내야 하는 이웃나라 일본의 처지가 너무도 안쓰럽지만,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설명에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다.

지구와 인류가 결국엔 하나로 묶여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본 지진과 같은 지구의 격변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지 의문이 든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응급차 소통 원활토록 차량 양보 시스템 갖춰야

운전중에 소방차, 앰뷸런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히 달리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가 잘 비켜주지 않아 긴급차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운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신호등 체계와 긴급차를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긴급차가 나타나면 1, 2차로에 있는 차들이 도로 좌우로 비켜주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우측으로만 피해 오히려 소방차가 달릴 틈이 없어진다.

또 하나, 신호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 일본에서는 응급차들이 교차로에 도착하면 중앙 시스템에서 신호를 초록불로 바꿔주거나, 응급차마다 센서가 달려 있어 자동으로 초록불로 바뀌게 한다는 것이다.

당장 교통시스템을 바꾸는 건 힘들지라도 1, 2차선에 있는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물러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으면 한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FAX	02-773-9335〉
조사부	2200-571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